

거지가 되지 말고, 영원한 권리를 지닌 이가 되어라.

오늘날의 세계를 한바퀴 돌고나서 세계의 창조자 아버지는 만남의 장소에서 그의 자녀들과의 영적이고 행복한 집회에 들어왔다. 세계 순회여행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겠느냐? 공여자의 자녀인 모든 영혼들이 거지의 형태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부는 왕족인 거지들이고 나머지는 보통의 거지들이다. 모든 이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제게 이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소서!” 라는 소리뿐이다. 일부는 재물을 달라는 거지들이고, 일부는 협조를 달라는 거지들이고, 어떤 이들은 관계를 갈구하는 거지들, 일부는 일시적인 행복과 안락을 구하는 거지들이고, 일부는 휴식과 잠을 구하는 거지들, 일부는 해방을 원하는 거지들, 일부는 그저 일별만을 원하는 거지들, 일부는 죽음을 구하는 거지들, 일부는 추종자들을 원하는 거지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위대한 영혼들에게, 신인 영혼들에게, 자기들과 육신의 관계를 가진 영혼들에게, “저에게 이것을 주소서! 저것을 제게 주세요!”라며 구걸하고 있다. 온통 거지들의 세상을 본 밥다다는 자아의 군주인 자들의 집회에 도달했다. 권리를 가진 자들은 생각으로도 “이것을 제게 주세요, 저걸 주세요!”라고 구걸할 수 없다. 거지들의 말은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인 반면, 권리를 가진 영혼의 말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권리다”라는 것이다. 너희는 권리를 가진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공여자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불멸하는 모든 성취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너희들 모두 생각에 오직, “나의 바바”라는 하나의 표현만을 담고 있다. 아버지는 단 몇 마디로, “모든 보물의 세계가 너희들의 것이다”라 했다. 단 하나의 생각이나 표현이 너희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는 도구가 되었다. “내 것과 당신의 것” 이라는 두 마디 말이 너희를 회전 안에 가둬놓는 반면, 그 두 마디 말이 너희를 일시적이고 슬픔으로 가득한 모든 소용돌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일체의 성취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준다. 너희는 온갖 회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며 자아각성의 원반 하나만을 취했다, 즉 너희는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몸, 마음, 부, 사람들, 관계들, 연결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회전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자아각성의 원반을 손에서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자아각성의 원반은 언제나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고 돌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손가락 다섯 개나 손가락 두 개로 돌리는 모습은 묘사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는, “나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속한다” 라는 생각 하나뿐이라는 뜻이다. 자아각성의 원반은 이 하나의 생각이라는 손가락에서 돈다. 그 한 분을 보내고 여러 생각들 안에 갇히면 너희는 온갖 유형의 회전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제 스스로를 비전으로 보며 영원히 행복하고 충족된 상태로 머문다는 뜻이다. 제 스스로를 비전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엔 너희가 충족되고 행복하지 못하며 갖가지 의문을 품은 자가 된다. 충족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의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즉 한결같이 너희 스스로를 비전으로 보며 행복하고 충족된 상태로 지내라, 즉 모든 성취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나 심지어 너희의 생각으로조차 거지의 모습으로 “이 일을 해 주세요!” 또는 “이 일이 일어나게 주소서!” “저에게 이 경험을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 장애를 치워 주소서!”라고 빌지 마라. 공여자 마스터의 궁정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부족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멸하는 자아의 주권이며 온갖 보물의 보물창고들이 가득히 넘쳐흐르는 왕국이다. 보물창고들이 가득히 넘쳐흐를 때 결여된 것이 무엇 하나인들 있을 수 있느냐? 너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불멸하는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끝없이 주는 공여자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만 곱절이나 더 많이 준다. 그러니 생각으로도 거지가 되지 마라. 이것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권리를 가진 자들이 되었느냐? 너희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노라”라고 노래 부르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는 “나는 이것을 앞으로 성취해야 한다, 나는 아직도 이걸 획득하지 못했다” 라고 불평의 노래를 부르느냐? 기억(야드)이 있는 곳에는 불평(파라드)이 있을 수 없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기억이 있을 수 없다. 이해하느냐?

너희가 가끔 왕국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의 단계라는 옷을 벗고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거지 단계의 낡은 옷을 걸치는 일은 없을 테지? 너희는 산스카르의 옷가방 안에 뭔가를 숨겨놓지는 않았을 테지? 너희는 그 단계의 옷과 더불어 옷가방도 이미 불에 태워버렸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에 대비해서 그것을 한 옆에 놔두었느냐? 심지어 너희의 산스카르에도 아주 작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때로는 거지, 때로는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두 색깔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고귀한 색깔 하나에만 물든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중 편자브 출신들은 뭔가를 색칠하는 데 영리하지 않느냐? 물이 빠지는 그런 색깔로 물들이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라자스탄 출신들은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의존하는 산스카르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변함없이 왕국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인도르에서 왔다. 너희는 항상 마야의 영향을 초월해서 언제나 실내(“인 도어”)에 있는 자들이다. 집안에 머무는 자들은 항상 아버지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너희들 역시 마야의 정복자가 아니냐? 네 번째 그룹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라시트라다. 너희의 생각, 말, 행위 등 모든 것이 위대하다, 이 세 가지 모두 극히 중요하다. 위대한 영혼들은 언제나 완전한 영혼들이다. 네 방향에서 네 강이 함께 왔지만, 너희들은 모두 다 모든 성취의 화신이 될 권리를 지닌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넷과 더불어 다섯 번째는 2중의 외국인들이다. 다섯 강이 어디서 만나느냐? 마두반의 강둑에서다. 강들과 대양의 만남이 있다. 앗차.

자아주권에 대한 변함없는 권리를 가진 영혼이며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림으로써 항상 행복하고 충족된 상태로 머무는 영혼들에게, 모든 보물들로 넘쳐흐르고 있는 위대한 영혼들에게, 생각으로조차 거지이기를 이미 끝낸 자들에게, 공여자의 반영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불멸해지고, 변함없이 충만함의 화신이 될 지어다”라는 영원한 밥다다의 축복과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1. 다양한 여러 곳에서 온 가지들이 하나의 나무가 되었을 만큼 너희는 그렇게 참으로 운이 좋다. 지금 너희 모두 너희들이 하나의 나무에 속한다고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 동일한 백단향(샌들우드)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모두 온갖 다양한 유형의 나뭇가지들이었다. 이제 너희들은 백단향 나뭇가지가 되었다. 백단향은 향기를 풍긴다. 진짜 백단향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랑으로 백단향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심지어 아버지도 항상 백단향처럼 향기를 내뿜는 고귀한 영혼들을 늘 그의 곁에 둔다. 하나는 아버지가 너희를 그의 곁에 둔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너희는 세상 앞에서 더없이 귀중한 보석들이다. 세상은 아직 이를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은 존경의 시선으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가 별을 볼 때 시선을 위로 향해 우러러보듯이 그들도 역시 지식의 별인 너희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귀중하지 않느냐? 너희는 백단향의 일부가 되었고 신의 동반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유명한 영혼들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너희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지 않은 형태로 기억되고 숭배될 정도로 참으로 유명하다. 너희는 사이클 전체 동안 내내 유명하다.

집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는 수백만 곱절로 행운 있게 되지 않았느냐? 행운이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들은 복을 쫓아가지 않았지만 행운이 너희 문 앞에 왔다. 다른 누가 이렇게 복이 많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삶은 참으로 고귀해졌다. 생은 한두 시간이 아니다. 삶은 영원하다. 너희는 단지 요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요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요기의 삶은 끊임없는 요기라는 뜻이다. 한결같이 요기인 자는 먹고 마시고 걷고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아버지와 고귀한 영혼으로서의 자아를 끊임없이 의식할 것이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녀들도 역시 그러하다. 아버지의 미덕들과 과업은 모든 자녀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요기의 삶이라 한다. 한 분의 사랑에 변함없이 잠겨 있는 그런 요기들은 변함없이 명랑하게 머물 수 있는 자들이다. 마음의 행복은 몸에도 역시 영향을 끼친다. 너희는 모든 성취의 화신들이니 그 모든 성취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지 않겠느냐? 슬픔은 이름이나 흔적도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행복의 화신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명랑하게 머문다는 뜻이다. 슬픈 세상에 대한 이끌림은 전혀 없다. 너희의 지각이 슬픔의 세계로 끌린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리로 이끌린다는 뜻이다. 항상 명랑한 (하르시트) 자들은 슬픔의 세계에 이끌릴 (아카르시트) 수가 없다. 만일 끌린다면 너희는 명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명랑한 상태로 머물러라. 유산은 영원하다. 이것이 특별함이다.

합류시대는 축복의 시대다. 축복의 시대에 배역을 연기하는 자들은 항상 축복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축복 받을 때는 너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 너희는 왕국에 대한 행운을 축복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노력함으로써 받았느냐? 축복의 공여자의 자녀가 되자마자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 너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불멸해질 지어다!”였다. 너희들은 불멸해졌으니 자동적으로 불멸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불멸하는 시대의 불멸하는 영혼들이다. 다른 아닌 축복의 공여자가 너희의 아버지, 스승, 사트구루가 되었으니 더 이상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의식을 항상 간직해라. 불멸하다는 것은 때로는 저 위로 올라갔다가 때로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고 안정된 단계를 가진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거늘 내려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언제나 고귀한 단계에 머무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특별한 영혼들이 되었다. 특별한 영혼의 모든 생각, 말, 행위는 특별할 것이다. 다른 영혼들도 역시 특별해져야겠다는 영감을 받을 정도로 너희의 말, 생각, 행위를 그렇게 특별하게 해라. 너희는 그렇게 특별한 영혼들이다. 비록 너희가 평범한 세상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사랑 받으며 독특하다. 너희는 연꽃들 같다. 너희들은 흙먼지 속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을 그 흙먼지에서 꺼내주는 자들이다. 경험을 가진 자들은 함정에 사로잡힘으로써 속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앗차.

2. 항상 너희 스스로 지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그래서 승리의 보석들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의 지각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항상 승리한다는 뜻이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승리가 있다. 승리가 없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믿음이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든 지식에 대한 믿음이든, 어딘가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 중 뭔가에 대한 믿음의 결여는 승리가 없다는 뜻이다.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승리다. 너희들은 이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느냐? 마야는 지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결코 흔들 수 없다. 그들은 마야가 흔들리게 만듦으로 그들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림 없을 때 너희들은 흔들림 없이 머물 것이다. 기반이 강하면 건축물도 역시 그만큼 강하다. 믿음의 토대가 흔들림이 없으면 행위라는 건물도 역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야를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마야가 언제 왜 오는지 잘 안다. 마야가 오는 방식들을 아는 자들은 늘 안전하게 머물 것이다. 적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면 너희는 그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지각이 있다면 마야가 왜 너희를 공격하겠느냐? 마야가 패배당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는

보석들이라는 것과 매 사이클마다 승리하는 자들임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계속 전진해라. 새들은 약한 잎들을 쪼아먹는다. 그러니 강해져라. 너희가 강해지면 마야는 새의 형태로 너희를 쪼아먹지 않을 테고 너희는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3. 너희는 평화의 대양의 자녀들인, 항상 평화의 화신인 자들이 이미 되었느냐? 너희가 세계에 평화를 세울 영혼이라는 도취감을 갖고 있느냐? 너희들의 본래의 종교는 평화이며, 너희들의 과제는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일이다. 평화의 화신인 자들은 세계에 평화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특히 평화의 대양, 아버지에게 특별히 협조하는 영혼들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과업이니 또한 자녀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항상 평화의 화신으로 머물고, 평화롭지 못함은 이름이나 흔적도 없게 해라. 평화롭지 못한 세상은 이미 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평화의 신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평화의 신인”이라고 한다. 너희는 평화를 주는 신들, 여신들이 되었다. 이 과제를 행하며 끊임없이 바쁘게 지냄으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마야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평화가 있는 곳에 마야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평화가 있는 곳, 즉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다. 평화롭지 못함은 이미 도망쳐 버렸다. 너희들은 반 사이클 동안 그것에게 작별을 고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그것과 작별을 고한 자들이 아니냐?

Blessing: 암릿 벨라의 중요성을 앎으로써 특별한 봉사자가 되고 위대해져라. 봉사자란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와 동반하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와 대등한 단계를 경험하는 자라는 뜻이다. 특별한 축복의 때를 알고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특별한 봉사자다. 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특별한 봉사자가 아닌, 평범한 봉사자다. 암릿 벨라, 시간, 봉사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 모든 것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은 위대해져서 남들과 그 중요성을 공유하며 그들 역시 중요하게 만든다.

Slogan: 생의 위대함은 모든 영혼이 고개 숙여 자동적으로 절하는 진리의 힘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